

현장의정활동관리카드

| | |
|------|--------|
| 전문위원 | 결 재 |
| 이영진 | |

문건-~~2219~~호(2017. 9. 5.)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관리번호 | 연번 | 방문 일시 | 2017.09.01 | 장소 | 도립미술관 |
| | 문화건설안전위원회 | | | | |
| 참여인원 | 5명 | | 참석의원 | 박재완 의원 | |
| | | | 직원 | 직원 4명 | |
| 사업명 | 현장의정활동 | | 총사업비 | | |
| 소관 | 국장 김인태 (T. 280-3300) | | 도립미술관장 김은영 (T. 290-6860) | | |
| 현장의정 활동배경 | 2017년 아시아현대미술전 개막식 참석 등 | | | | |
| 조치결과 | 개선 여부 | | 개선시기 | | 개선유보 |
| | 개선유보 미개선 사유 | | | | |

현장 의정활동 결과

○ 주요현황

- 일 시 : 2017. 9. 1(금) 16:00 ~ 17:30
- 장 소 : 전북도립미술관 강당(1층)
- 내 용 : 식전행사, 개막식, 기념촬영, 전시관람 등
- 참석인원 : 200여 명

○ 활동결과

- 전북도립미술관은 아시아 미술을 전북에 불러들이고, 전북미술을 아시아로 나가게 하는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으며, 올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아시아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거침없는 방식으로 표현한 여성미술에 주목하고 있음
- 지금은 여성이 대세로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는 양성이 평등하다고 단언하기에 부족한 구조들이 여전하지만, 남성이 체감하는 여성의 힘은 강력하나,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활기 넘치는 아시아 여성미술가들의 기운이 느껴짐
- 또한, 오늘 부임한 김은영 관장도 여성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을 통해 지역 미술인들과 잘 융화하면서 크게 일어나 도약하는 전북미술을 기대함
- <아시아현대미술전>이 아시아 예술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각국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길 바라며, 더 나아가 우리 전라북도가 아시아 문화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아시아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

○현장사진



현장사진



현장사진